

“우리의 삶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 되길”

부부展 갖는 이인성·성혜림 작가

이, 지난해 신세계미술상 수상
성, 광주 ‘아트버스’ 그림 익숙
시립미술관 레지던스서 부부 인연
화이트 큐브 갤러리서 30일까지



▶광주시 서구 매월동 화이트 큐브갤러리에서 2인전을 여는 이인성·성혜림 부부 작가가 이씨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인성·성혜림 2인전”이 열리고 있는 화이트 큐브 갤러리는 ‘이런 데 갤러리가 있나’ 싶은 곳에 있었다. 광주시 서구 매월동 전평재 옆, 아름다운 풍광이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다. 두어달 전 이곳에 갤러리를 연 미술평론가 정명숙 관장도 바로 이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고, 이번에 두 번째 전시로 이 작가 등을 초대했다.

눈을 지긋이 내리깔고 생각에 잠겨 있거나,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가 트레이드 마크인 성혜림(30) 작가의 작품은 광주 시내를 달리는 ‘아트버스’를 통해 특히 많은 이들에게 익숙해져 있다. 이인성(36) 작가의 작품은 독특한 화풍과 함께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주황색 점’이 인상 깊어 항상 공감증이 일었다.

전시장에 들러 흥미롭게 작품을 감상하다 각기 ‘따로’ 알고 있던 두 작가가 부부라는 사실을 접하고 며칠 뒤 월산동 작업실에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났다. 조선훈 미술학과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 작가는 지난해 신세계미술상을 받으면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생각으로 꾸준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가장 받고 싶은 상종의 하나가 신세계미술상이죠. 수상할 때 정말 기뻐요.”

이 작가는 2011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센터에 머물렀다. 지원받은 기간은 1년이었지만 작품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 개인적으로 2013년까지 머물렀고 그 곳에서 작품에 대해,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중국에 있을 때 같이 머물던 화가 중에 테니스 라켓에 공을 묶어 항상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습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슬퍼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테니스는 돌아서 하는 거잖아요. ‘홀로’ 무언가를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됐죠. 당시 중국에 홀로 남아 있던 제 자신의 모습도 오버랩되구요. 나중을 위한 대비,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기를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됐고 제 작품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유적 공감각’을 주제로 화이트 큐브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엔 역시 그의 상징인 ‘주황색 점’이 강한 인



성혜림 작 ‘눈물이 글썽’

상을 남긴다.

“주황색 점은 화면 전체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자, 꿈을 상징해요. 탐험하고, 정원에 물을 주고, 무화과를 따는 그림 속 인물들의 모습과 함께 그 ‘점’들을 통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을 하게되는 거죠. 그 점이 내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게 뭐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인 ‘아이’는 처음에는 단순히 캐릭터에 머물다 점점 스토리가 붙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면서 풍성한 화면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눈물이 글썽’, ‘외출’ 등 이번 전시작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 때부터 그랬던 소재예요. 졸업도, 취업도 해야 하지만 두려워 하는 내 자신이 아이같고 미성숙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회에 나가는 시기를 미루고만 싶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내면의 제 자화상같은 거였죠. 그림을 보시는 분들도 자신의 감정을 많이 이입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의 어린 자아를 안아주고 싶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두 사람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조진호 관장의 주례로 백년가약을 맺었고 1층 로비에서 2인전도 열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성 작가가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이 작가가 북경에 있을 때 열린 교류행사를 통해서였다. 나이 차가 있어 학교를 같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성 작가는 “열심히 작업하는 두 명의 선배 화가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 중 한명이 바로 이 작가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든든한 후원자다. 특히 이 작가는 2세 문제 등이 있기는 하지만 당분간은 아내가 ‘작가’로서 더 몰두하길 바라는 마음이 커 해외 창작 스튜디오 지원 등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예전에는 제 그림 속 아이 캐릭터가 내면의 나에 더 충실했다면 최근에는 그 아이가 좀 더 사회로 나가고, 주변의 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등 변화를 보이는 듯해요. 남편을 포함해 다양한 작가들과의 교류가 그런 변화를 이끈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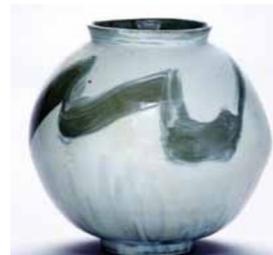
성 작가는 앞으로 해외 창작 스튜디오 등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생각이다.

이 작가는 서울의 유명 대안공간 사무비아다방의 공모에 당선돼 서울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또 다른 도약을 꿈꾸고 있다.

“결혼할 때선배들이 작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하셨어요(웃음) 저희는 가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 성향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관점은 비슷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고민한다는 거죠.”(이인성)

이번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관람시간 낮 12시30분~오후 8시30분(수요일 휴관). 문의 062-385-03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달항아리의 현대적 재해석...김기현 도예전



15~31일 영산강문화관

많은 기운의 다양한 달 항아리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작품전이 열린다.

“김기현-달 항아리”전이 15~31일까지 광주시 남구 승촌동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김 작가가 조선시대 유행했던 달 항아리를 다양한 분장(粉裝)과 유약(釉藥)기법을 활용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는 색다른 도예전이다.

달 항아리는 조선시대, 특히 17~18세기 사이에 경기도 광주의 관요를 중심으로 발전한 백자의 한 종류다. 둥근 형태가이나 뽀얀 색감이 지닌 특징을 따서

달 항아리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현대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의 백자형 달 항아리 뿐만 아니라 분장자 및 청자 달 항아리도 소개된다. 원래 달 항아리는 규모가 크고, 부정형의 손맛이 느껴지며, 단일하지 않은 오묘한 색감이 특징이다. 여기에 대담한 선묘를 넣은 귀얄기법의 분장과 정아한 비취빛의 청자까지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광주지역에서 30여년 도예작업을 해온 김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거쳐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남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광주 북구에서 해운도에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335-08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김윤기씨

광주시는 11일 (재)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김윤기(60·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무몰아트컴퍼니 사업단장·사진)를 선임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2차 공모에서 재단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후보자 2명을 추천받아 검토한 끝에 김씨를 적임자로 최종 낙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장(2001~2003년)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예비사회적기업 ‘무몰아트컴퍼니’ 사업단장(2008~2009년), (재)광주문화재단 이트광주사무국 사무국장과 운영



감독 (2011~2012년) 등을 역임했다. 시는 김 후보자가 문화예술분야 경험에 풍부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해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했다. 광주시는 인사청문회 자료 준비 및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인사청문요청서를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 초 개최될 예정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16년 사업성과 담은 ‘광주문화재단 백서’ 발행

광주문화재단은 2016년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담은 ‘2016 광주문화재단백서(이하 2016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광주문화재단백서’는 재단의 사업 현황과 성과를 정리하기 위해 발간하는 책자로서 ‘2016백서’는 경영 비전과 추진전략, 사업소개, 부록 등 9개 섹션 총17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소개’ 부분은 ▲창작 지원 ▲예술

교육 ▲정책 연구 ▲시민 문화(문화향유, 문화나눔) ▲문화소통(네트워크, 홍보) ▲공관운영(빛고을시민문화관, 전통문화관) 등 6개로 구분해 사업에 다뤘다. 백서는 문화기관 등 120여 곳에 배포됐고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자료마당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문의 062-670-742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8월호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어촌의 여름을 즐긴다

-바지락 맛조개 갯벌 체험, 태안 병술만 마을
-달빛 아래 흰 상사화와 해변 산책, 위도 별금마을
-옛 당집과 신기한 해녀 체험, 울산 주전마을

보성에서의 여름휴가 활력 충전 100%
맛 맛 역사 자연 두루 갖춘 가족여행지로 각광

노충혼의 꿈의 여행
인도양에 떠있는 천혜의 섬나라, **세이셸**

문화 축제
브런치 콘서트, 달콤한 인기
“음악, 나누면 더 행복하죠”
오디오 마니아 건축사 최경양 씨

여행이 만난 이 사람
송정동에 ‘문화와 정돈’ 퍼트리라는 **협동조합 이공**
트레이드를 터닝 포인트 삼은 KIA 1번 타자 **이명기**

60년 소리 인생 판소리 명창 안숙선
“소리 공부는 끝없어 매일 수련”

대안민국 식품명인
대나무의 기 담긴 천년 명주의 맥 잇고, 세계의 술과 어깨 나란히
추성주 명인 **양대수**

트렌드 따라잡기
마성의 1인 영상미디어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어”

음식과 문화
목공예·떡살 전문가 이상국씨가
고안한 새로운 원형 떡살

정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재향과 선택
현대 미술계의 두 여성 스타
바비라 크루거 Vs. 신디 셔먼

베트남의 대중문화 X파일상
김태호·나영석,
진행형 레전드 예능PD!

드론으로 본 세상
더위 가르며 바람 질주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

남도 스테이
천새, 흰방울개, 탁자거리는
생명의 청정갯벌